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

Awareness of Evaluative Accreditation System of the Heads and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임양미*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부교수 김혜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경숙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 Lim, Yang-Mi

Dep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Kim, Hye-Gum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Jeon, Kyung-Sook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Evaluative Accreditation System(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Evaluative Accreditation, the effect of Evaluative Accreditation, and the preferred public support types for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Evaluative Accreditation) between child-care directors and teachers, and among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168 child-care directors and 423 child-care teachers in Gyeonggido.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he chi-test and the t-test.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Evaluative Accreditation among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Second, there was difference in awareness of the effect of Evaluative Accreditation on child-care service areas between child-care center directors and teachers, and among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in terms of child-care services. Third, in terms of the preferred public support for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in Evaluative Accreditation,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child-care center directors and teachers, and among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주요어(Key Words) : 보육시설장(child-care directors), 보육교사(childcare teachers), 평가인증운영과정(administrative procedures of Evaluative Accreditation), 평가인증효과(effect of Evaluative Accreditation), 평가인증활성화방안(public support for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in Evaluative Accreditation)

* 주 저 자 : 임양미 (E-mail : ym68@gfwri.kr)

** 교신저자 : 김혜금 (E-mail : khghoonba@hanmail.net)

I. 서론

1995년부터 1997년 사이 진행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사업 이래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 2005년부터 도입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보육현장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질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 중 29,084개소(86.8%)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255개소(60.5%, '10. 3월)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2006년에는 2,804개소(신청 4,420개소)에 불과하였던 인증시설이 2009년에는 7,156개소(신청 9,440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으며 평가인증 시행 초기에는 참여가 높지 않았던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참여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10개소 중 6개소 가까이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년 3월 25일).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와 병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평가인증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과중한 행정업무와 비용 부담 등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됨으로써 평가인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부터 문서 정리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학부모의 반대와 우려, 인증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오류, 인력관리의 어려움, 조력의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조경서·유준호, 2009). 평가인증 준비로 인하여 오히려 영유아 보육에 소홀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상반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은 보육시설 스스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체점검 과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취약점은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과 의지이다. 그 동기부여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제시했던 인증통과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이제 자발적 참여보다는 보육시설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적인 사안이라는 다소 강제적인 분위기마저 조성되어 있는 현실이다. 오랜 기간 운영에만 매달려온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과정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평가인증에 통과해야 하는 결과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어 평가인증제 본래의 의미마저 퇴색될 위기에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통해 보육교사의 질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증통과 후 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이전보다 더 적합한 영역별 활동을 제공하고(유희정, 2007), 보육교사 스스로 질적 수준에 대한 향상을 느끼고 영유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보육활동에서 자료를 좀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2007). 인증과정을 겪으면서 교사들은 스스로 긍정적 자세와 적극적 태도, 업무책임감을 갖게 되었으며, 아동중심의 관점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일일 보육계획안에 따라 계획적인 수업 준비와 교구제작이 강화되었으며(김향은, 2008), 보육환경 영역이 가장 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인식하였다(김동래, 2007).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교사로서의 교사효능감이 향상되고, 교사 역할 수행 인식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최미숙 등, 2007). 시설장들은 평가인증 통과를 경험하면서 자긍심이 확립되었으며(오민수, 2007), 평가인증제를 통해 우수시설로 선정되면서 해당 보육시설의 변화가 생긴 것에 만족하였으며, 특히 보육교사와 보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증진되었으며(남선영, 2006), 인증과정 참여를 통해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구현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학부모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탁옥경·배지희, 2007b).

그런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개별 보육시설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부담과 함께 정서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경혜·김진숙, 2006). 시설장들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비용, 서류준비, 교사 관리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평가준비 인력의 부족, 평가인증 지표 해석의 곤란과 지표의 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정덕희, 2007), 보육교사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평가영역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하영례·고경필, 2007; 장달금·이영석, 2007). 또한 보육시설장은 평가인증 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하지만 보육교사는 수동적, 소극적인 입장에서 보육시설장의 의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장은 평가인증 준비과정을 매우 어렵게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며 보육교사는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직을 하기도 한다(서현, 2007).

교사들이 평가인증을 보육 업무 외의 추가업무라고 여기고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아무리 평가인증을 통과한다고 해도 보육아동을 위한 진정한 질적 서비스 향상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다(마미정, 2006). 또한 보육시설장도 평가인증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들과 함께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고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갈

등이 증폭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평가인증 참여율과 통과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평가인증 전반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평가인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시설유형별로 보육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각 시설유형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평가인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로 교사의 평가인증제 준비의 어려움(하영례 · 고경필, 2007),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역할수행 인식에 미치는 영향(최미숙 등, 2007), 자기평가 전문성 발달수준(채혜선 · 현정희, 2008), 평가인증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미정 · 이진희, 2010),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의 교사의 경험의 의미(서현, 2007), 평가인증제 참여교사와 비참여교사의 직무만족도 비교연구(김동례 · 이현경, 2008), 평가인증이 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김영희 등, 2008), 평가인증에 대한 교사의 평가(박지현 등, 2008), 지역사회 대학연수가 교사의 평가인증 지표 이해에 미치는 보육경력별 효과(조혜경 · 오애순, 2007), 평가인증 참여 전후의 교사 효능감과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인식 및 경험(원정아 · 이진희, 2008) 등 매우 많다. 반면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장의 인식(이재완 · 류수현, 2006)과 정부복지지원시설장이 바라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정덕희, 2007) 연구만 있을 뿐이다.

평가인증제를 통해 보육시설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고 보육시설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평가인증 참여율 및 통과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런데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시설유형별로도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탁옥경 · 배지희,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견해를 비교하거나 시설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반응 분석(김경혜 · 김진숙, 2006),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참여 및 만족도 분석(하은경 등, 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탁옥경 · 배지희, 2007a) 등 소수에 불과하다. 김경혜와 김진숙(2006)의 연구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두 대상의 반응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하였으며 탁옥경과 배지희(2007a)의 연구 또한 원장 5명과 보육교사 11명 총 16명을 대상

으로 한 질적연구를 한 것으로 역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은경 등(2008)의 연구는 시설장 및 교사 17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직급별 사례수의 차이가 커서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근무하는 시설유형별로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급(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과 보육시설 유형(국공립/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따른 평가인증운영 전반, 평가인증의 효과,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평가인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 개발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급(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유형(국공립/법인, 민간, 가정)에 따라 평가인증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급(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유형(국공립/법인, 민간, 가정)에 따라 평가인증의 효과에 대해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급(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유형(국공립/법인, 민간, 가정)에 따라 평가인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전 보육시설의 목록을 수집하여 1차로 평가인증 여부로 구분한 후,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여 시설유형(국공립/법인, 민간, 가정)별로 할당표집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이 기타 다른 보육시설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정보육시설의 표본비율을 국공립/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보다 높게 산정하였다. 선정된 보육시설은 총 306개로, 평가인증 시설과 미인증 시설은 각각 50.9%, 49.1%이었으며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은 27.5%, 민간 보육시설은 37.9%, 가정 보육시설은 34.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총 306개의 표집된 보육시설 시설장 1명과 각 보육시설 당 보육교사 3명(경력 정도에 따라 보육종사 경력이 가장 오래된 교사, 보육종사 경력이 중간 정도인

교사, 보육종사 경력이 가장 적은 교사 1명), 총 1,224명(보육시설장: 306명, 보육교사: 91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설에 전화로 조사에 응해줄 것을 의뢰한 후 이메일과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육시설장 168명, 보육교사 423명 총 59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48.3%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보육시설장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152명(68.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경력은

5년 이상이 123명(75.0%)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장의 평균 연령은 42.9세로 45세 이상이 73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하는 시설유형은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이 60명(36.6%), 가정보육시설 57명(34.8%), 민간보육시설 47명(28.7%)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전문대졸이 224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1~5년미만의 경력 소지자가 203명(48.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보육교사의 평균연령은 31.6세로 25~35세미만이 210명(51.6%)으로 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근무하는 보육시설

<표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591)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학력	고졸	14(8.4)	학력	고졸	61(15.1)
	전문대졸(2, 3년제)	64(38.6)		전문대졸(2, 3년제)	224(55.6)
	대학교졸(4년제)	50(30.1)		대학교졸(4년제)	103(25.6)
	대학원졸	38(22.9)		대학원졸	15(3.7)
계		166(100.0)	계		403(100.0)
경력	1년 미만	5(3.0)	경력	1년 미만	61(15.1)
	1~3년 미만	14(8.5)		1~3년 미만	104(25.7)
	3~5년 미만	22(13.4)		3~5년 미만	91(22.5)
	5년 이상	123(75.0)		5년 이상	148(36.6)
계		164(100.0)	계		404(100.0)
보육 시설장 (n=168)	20~25세 미만	1(0.6)	보육 교사 (n=423)	20~25세미만	63(15.5)
	25~30세 미만	3(1.8)		25~30세미만	131(32.2)
	30~35세 미만	17(10.2)		30~35세미만	79(19.4)
	35~40세 미만	30(18.0)		35~40세미만	68(16.7)
	40~45세 미만	43(25.7)		40~45세미만	49(12.0)
	45세 이상	73(43.7)		45세 이상	17(4.2)
계		167(100.0)	계		407(100.0)
근무하는 시설유형	국공립/법인	60(36.6)	근무하는 시설유형	국공립/법인	167(41.5)
	민간	47(28.7)		민간	82(20.4)
	가정	57(34.8)		가정	153(38.1)
	계	164(100.0)		계	402(100.0)

<표 2> 설문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평가인증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제도의 필요성(4점 척도) - 평가인증 운영 세부 영역에 대한 적절성(4점 척도) - 방문 조력활동의 필요성(4점 척도) - 방문 조력활동의 보완점 - 평가인증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 -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
평가인증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효과 분야 - 분야별 평가인증 효과 정도(4점 척도)
평가인증 활성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필요한 행정적 지원 - 필요한 재정적 지원 -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책
일반적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학력/경력/직책 - 시설유형/시설 소재지/ 보육아동 정원 및 현원

유형은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167명(41.5%), 가정보육시설 153명(38.1%), 민간보육시설 82명(20.4%)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김동례(2007), 유희정(2007), 그리고 하은경 등(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만들었으며 설문지의 내용이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보육시설장 5인에게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부탁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평가인증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평가인증의 효과, 평가인증 활성화방안, 일반적인 사항 4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인증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6문항, 평가인증의 효과 15문항, 평가인증 활성화방안 4문항, 일반적인 사항 8문항으로 전체 33문항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영역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각 10명씩 2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15~20여분 정도였다.

2) 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기도 소재 조사대상 보육시설장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설문지를 받은 보육시설장은 주임교사나 총 보육종사 경력이 가장 많은 교사 1명과 일반교사 2명으로 경력이 가장 적은 교사 1명과 경력이 중간 정도인 교사 1명의 기준에 부합되는 보육교사 3명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은 응답한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반송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구하고 t-test와 χ^2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시설유형별 평가인증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평가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시설유형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F=5.07, p<.01$), 국공립/법인이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M=2.93, SD=0.58$), 그 다음이 가정($M=2.84, SD=0.76$)으로 나타났고 민간($M=2.73, SD=0.6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시설유형에 따라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 세부영역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 보다 현장방문관찰 절차($t=-2.70, p<.01$) 및 평가지표 교육($t=-2.87, p<.01$)에 대해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이 소속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법인 및 가정보육시설에 비해 자체점검기간($F=7.41, p<.01$), 평가인증 지표($F=6.13, p<.01$), 현장방문관찰 절차($F=4.09, p<.05$), 평가지표 교육($F=6.40, p<.01$), 평가인증 유효기간($F=3.81, p<.05$)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시설유형에 따라 평가인증 방문조

<표 3>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차이검증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직 급	보육시설장 405	2.91(0.67) 2.80(0.66)	$t=1.76(n.s.)$	
	시설유형	국공립/법인	227	2.93(0.58)	$F=5.07^{**}$
		민 간	214	2.73(0.67)	
가 정		128	2.84(0.76)		

** $p<.01$

<표 4>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운영 하위항목에 대한 적절성 차이검증

구 분	직 급				차이검증	시설유형						차이검증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체 점검기간	158	2.99 (0.51)	391	3.05 (0.51)	n.s.	221	3.12 (0.45)	204	2.94 (0.54)	121	3.07 (0.53)	F=7.41**
평가인증지표	159	2.94 (0.55)	393	3.00 (0.54)	n.s.	223	3.03 (0.50)	202	2.89 (0.61)	124	3.10 (0.51)	F=6.13**
현장방문관찰 (평가) 절차	156	2.74 (0.62)	390	2.90 (0.55)	t=-2.70**	223	2.90 (0.57)	201	2.78 (0.58)	119	2.95 (0.56)	F=4.09*
평가지표 교육	156	2.84 (0.53)	392	2.98 (0.48)	t=-2.87**	223	3.04 (0.47)	202	2.86 (0.47)	120	2.96 (0.58)	F=6.40**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156	2.56 (0.65)	392	2.49 (0.68)	n.s.	223	2.54 (0.64)	202	2.40 (0.73)	120	2.60 (0.62)	F=3.81*

*p<.05, **p<.01

<표 5>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방문조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차이검증
평가인증 방문조력 활동의 필요성	직 급		
	보육시설장	164	2.96(0.71)
	보육교사	406	3.00(0.59)
	차이검증		t=-0.76(n.s.)
	시설유형		
국공립/법인	226	3.06(0.62)	
민 간	212	2.90(0.61)	
가 정	129	3.02(0.65)	
차이검증			F=3.74*

<표 6>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방문조력 활동 보완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직 급			시설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조력인력 교육강화	24(14.7)	49(12.2)	34(15.0)	26(12.5)	16(12.5)
조력인력 부족으로 조력인력풀 확대	11(6.7)	24(6.0)	11(4.8)	17(8.2)	7(5.5)
2명 이상의 조력인력이 시설에 대해 의견제공시 일관된 의견제공	30(18.4)	83(20.6)	49(21.6)	34(16.3)	31(24.2)
방문하는 시설유형별로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 파견	92(56.4)	242(60.2)	128(56.4)	128(61.5)	72(56.3)
기 타	6(3.7)	4(1.0)	5(2.2)	3(1.4)	2(1.6)
합 계	163(100.0)	402(100.0)	227(100.0)	208(100.0)	128(100.0)
차이검증	$\chi^2= 5.99(n.s)$			$\chi^2= 6.46(n.s.)$	

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평가인증 방문조력 활동의 필요성에 있어서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보다 필요성을 다소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 시설유형별로는 방문조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F=3.74, p<.05). 즉 국공립/법인(M=3.06, SD=0.62)과 가정보육시설(M=3.02, SD=0.65)이 민간보육시설(M=2.90, SD=0.61)보다 방문조력 활동을 더 필

요로 하였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활동 보완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평가인증 조력활동 보완점에 대해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급 및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방문하는 시설유형별로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 파견(58.7%)을 가장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명 이상의 조

<표 7>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실시와 관련한 부모의 반응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직 급			시설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긍정적	121 (78.1)	335 (85.2)	202 (91.8)	147 (72.4)	104 (86.0)
부정적	34 (21.9)	58 (14.8)	18 (8.2)	56 (27.6)	17 (14.0)
합 계	155(100.0)	393(100.0)	220(100.0)	203(100.0)	121(100.0)
차이검증	$\chi^2= 4.09^*$			$\chi^2= 29.34^{***}$	

*p<.05, ***p<.001

<표 8>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실시에 부정적인 부모의 반응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직 급			시설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평가인증 준비 기간 중 교사가 영유아 보육에 소홀하게 되므로	9 (39.1)	30 (73.2)	11 (64.7)	29 (55.8)	6 (46.2)
특별활동이 줄어들게 되므로	8 (34.8)	7 (17.1)	5 (29.4)	15 (28.8)	5 (38.5)
교사이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3 (13.0)	1 (2.4)	1 (5.9)	1 (1.9)	2 (15.4)
기 타	3 (13.0)	3 (7.3)	-	7 (13.5)	-
합 계	23(100.0)	41(100.0)	17(100.0)	52(100.0)	13(100.0)
차이검증	$\chi^2=9.20^*$			$\chi^2=8.72(n.s.)$	

*p<.05

<표 9>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참여 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직 급			시설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평가인증 지표 및 문항 이해의 어려움	11 (11.0)	79(32.4)	32(14.1)	45(20.9)	16(12.3)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	61 (61.0)	187(76.6)	113(49.8)	82(38.1)	52(40.0)
평가인증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감	59 (59.0)	37(15.2)	38(16.7)	33(15.3)	27(20.8)
평가인증에 대한 부모의 의식 결여	14 (14.0)	19 (7.8)	13 (5.7)	21 (9.8)	2 (1.5)
평가인증 준비로 영유아 보육에 소홀	31 (31.0)	134(54.9)	76(33.5)	59(27.4)	27(20.8)
교사의 이익/불만 제기	10 (10.0)	10 (4.1)	6 (2.6)	8 (3.7)	6 (4.6)
기 타	5(100.0)	7 (2.9)	11 (4.8)	2 (0.9)	1 (0.8)

*중복응답

력인력이 시설에 대해 의견을 제공할 경우 일관된 의견제공 (20.1%), 조력인력 교육강화(13.3%)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와 관련한 부모의 반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보육교사(85.2%)는 보육시설장(78.1%)보다 부모가 평가인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chi^2=4.09, p<.05$). 또한 조사대상이 소속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인식하는 측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국공립/법인보육시설과 가정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의 부모가 평가인증을 부정적으로 반응한 경우가

많았다($\chi^2=29.34, p<.001$).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chi^2=9.20, p<.05$). 즉, 부모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로 보육시설장은 영유아 보육에 소홀하게 된 점(39.1%)과 특별활동이 줄어드는 것(34.8%)을 주요 원인으로 본 반면 보육교사는 평가인증 준비기간 동안 교사가 영유아 보육에 소홀하게 된 점(73.2%)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에 부정적인

부모의 반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설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보육시설장은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61.0%)과 평가인증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감(59.0%)을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한 반면, 보육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76.6%) 외에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소홀한 점(4.9%)을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았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평가인증 준비로 영유아 보육에 소홀', '평가인증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급 및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효과에 대한 인식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급 및 시설유형별로 평가인증을 받은 후 가장 도움이 된 측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평가인증을 받은 후 가장 도움이 된 측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chi^2=8.50, p<.05$). 보육시설장은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64명(72.7%), 학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14명(15.9%), 교사의 전문적 능력 함양 10명(11.4%) 순으로 도움이 된 측면을 보고하였고 보육교사는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149명(64.2%), 교사의 전문적 능력 함양 45명(19.4%), 학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20명(8.6%) 순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시설유형에서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측면에 대한 도움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효과 분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영유아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t=-2.05, p<.05$)와 지역사회와의 협조 증가($t=-2.36, p<.05$) 측면에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효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보다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협조 증가' 측면에서 평가인증의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였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보육시설 질적 수준 개선($F=5.31, p<.05$), 보육활동의 다양성($F=6.62, p<.01$), 영유아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F=3.31, p<.05$),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강화($F=3.68, p<.05$)에서 의미있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가정, 민간,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3가지 측면 모두에서 가정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의 효과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이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급 및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로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104명(61.9%),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103명(61.3%), 평가인증 문항의 축소와 기준 완화 55명(32.7%) 순으로 보고하였고 보육교사는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280명(66.2%),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240명(56.7%), 평가인증 문항의 축소와 기준 완화 116명(27.4%) 순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국공립/법인은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166명(73.1%),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표 10>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을 받은 후 가장 도움이 된 측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직 급			시설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학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14(15.9)	20(8.6)	16(11.0)	12(9.9)	10(14.9)
원아모집	-	8(3.4)	4(2.7)	3(2.5)	2(3.0)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64(72.7)	149(64.2)	99(67.8)	82(67.8)	40(59.7)
교사의 전문적 능력 함양	10(11.4)	45(19.4)	24(16.4)	19(15.7)	13(19.4)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	-	10(4.3)	3(2.1)	5(4.1)	2(3.0)
합 계	88(100.0)	232(100.0)	146(100.0)	121(100.0)	67(100.0)
차이검증	$\chi^2=8.50^*$			$\chi^2=2.89(n.s.)$	

* $p<.05$

<표 11>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효과 분야에 대한 인식

구 분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차이 검증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차이 검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89	3.28(0.54)	228	3.22(0.52)	n.s.	134	3.30(0.52)	114	3.11(0.45)	64	3.34(0.64)	F=5.31**
보육시설 환경개선	90	3.38(0.48)	229	3.30(0.51)	n.s.	134	3.38(0.50)	115	3.23(0.50)	65	3.37(0.51)	n.s.
보육활동자료의 보충 및 개선	89	3.18(0.51)	226	3.23(0.51)	n.s.	133	3.23(0.48)	114	3.18(0.48)	63	3.27(0.60)	n.s.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강화	89	3.16(0.54)	229	3.16(0.56)	n.s.	134	3.16(0.50)	114	3.14(0.59)	65	3.18(0.63)	n.s.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89	3.08(0.64)	228	3.11(0.60)	n.s.	134	3.11(0.55)	114	2.97(0.57)	64	3.27(0.76)	F=4.81**
보육활동의 다양성	89	3.03(0.61)	227	3.13(0.53)	n.s.	134	3.11(0.51)	114	2.97(0.54)	63	3.29(0.63)	F=6.62**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 향상	88	3.10(0.56)	229	3.14(0.60)	n.s.	133	3.14(0.58)	114	3.04(0.53)	65	3.23(0.67)	n.s.
청결과 위생상태 개선	89	3.29(0.56)	226	3.36(0.53)	n.s.	134	3.34(0.52)	114	3.30(0.51)	62	3.39(0.63)	n.s.
질병관리계획 수립	88	3.10(0.64)	227	3.16(0.56)	n.s.	134	3.14(0.57)	114	3.13(0.57)	62	3.16(0.65)	n.s.
급식 및 간식의 질 개선	89	2.99(0.64)	228	3.14(0.59)	n.s.	133	3.15(0.59)	114	3.01(0.58)	65	3.14(0.68)	n.s.
영유아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	90	3.19(0.61)	228	3.33(0.54)	t=-2.05*	135	3.24(0.57)	114	3.27(0.55)	64	3.45(0.56)	F=3.31*
영유아 가족과의 협력 증대	89	2.83(0.69)	228	2.97(0.66)	n.s.	134	2.93(0.65)	114	2.92(0.58)	64	2.94(0.88)	n.s.
지역사회와의 협조 증가	89	2.67(0.82)	227	2.91(0.69)	t=-2.36*	133	2.92(0.70)	114	2.82(0.65)	64	2.70(0.92)	n.s.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강화	89	3.15(0.59)	228	3.21(0.53)	n.s.	133	3.22(0.49)	114	3.07(0.56)	65	3.28(0.60)	F=3.68*

*p<.05

<표 12>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직 급			시설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103(62.4)	280(68.8)	166(73.1)	121(56.3)	92(70.8)	
평가인증 참여를 위한 수수료 지원	14(8.5)	33(8.1)	12(5.3)	20(9.3)	15(11.5)	
평가인증과정의 기간 조정	8(4.8)	39(9.6)	27(11.9)	9(4.2)	9(6.9)	
평가인증 문항의 축소와 기준 완화	55(33.3)	116(28.5)	67(29.5)	69(32.1)	29(22.3)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104(63.0)	240(59.0)	121(53.3)	152(70.7)	74(56.9)	
학부모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강화	11(6.7)	39(9.6)	20(8.8)	20(9.3)	13(10.0)	
보육시설 종사자 의식개선	26(15.8)	52(12.8)	33(14.5)	22(10.2)	23(17.7)	
기 타	2(1.2)	2(0.5)	2(0.9)	1(0.5)	1(0.8)	

*중복응답

지원 121명(53.3%), 평가인증 문항의 축소와 기준 완화 67명(29.5%) 순으로 나타났고, 민간은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152명(70.7%),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121명(56.3%), 평가인증 문항의 축소와 기준 완화 69명(32.1%)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보육시설은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92명(70.8%),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74명(56.9%), 평가인증 문항의 축소와 기준 완화 29명(22.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로 평가인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의하면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로 보육

<표 13>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직 급			시설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학부모 대상 홍보강화	6(3.8)	24(6.0)	9(4.0)	13(6.4)	8(6.2)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평가인증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14(8.9)	35(8.7)	22(9.8)	17(8.4)	10(7.8)
보육시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력활동 활성화	94(59.9)	239(59.6)	136(60.7)	125(61.6)	72(55.8)
평가인증 준비 시, 지원인력파견제 도입	38(24.2)	101(25.2)	54(24.1)	44(21.7)	39(30.2)
기 타	5(3.2)	2(0.5)	3(1.3)	4(2.0)	-
합 계	157(100.0)	401(100.0)	224(100.0)	203(100.0)	129(100.0)
차이검증	$\chi^2=7.52(ns)$			$\chi^2=7.11(ns.)$	

<표 14>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직 급			시설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35(21.6)	193(47.9)	105(46.9)	75(35.9)	47(36.4)
교재교구·기자재 구입비	28(17.3)	55(13.6)	37(16.5)	26(12.4)	20(15.5)
보육환경개선비	96(59.3)	147(36.5)	78(34.8)	106(50.7)	59(45.7)
시설운영비	1(0.6)	8(2.0)	4(1.8)	1(0.5)	2(1.6)
기 타	2(1.2)	-(0.0)	-	1(0.5)	1(0.8)
합 계	162(100.0)	403(100.0)	224(100.0)	209(100.0)	129(100.0)
차이검증	$\chi^2=41.10^{***}$			$\chi^2=14.85(ns.)$	

***p<.001

시설 평가인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보육시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력활동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그 다음이 평가인증 준비시 지원인력 파견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별로도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보육시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력활동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그 다음이 평가인증 준비시 지원인력파견제 도입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로 평가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의하면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chi^2=41.10, p<.001$). 즉 보육시설장은 보육환경개선비 96명(59.3%),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35명(21.6%), 교재교구 기자재 구입비 28명(17.3%) 순으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보육교사는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193명(47.9%), 보육환경개선비 147명(36.5%), 교재교구 기자재 구입비 55명(13.6%)

순으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한편 평가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국공립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민간과 가정은 보육환경개선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으나 시설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및 유형별로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후 보상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의하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후 보상책에 대해 보육시설장은 평가인증 보육시설 시설 운영비 지원 106명(66.3%),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68명(42.5%),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증액 57명(35.6%) 순으로 응답하였고 보육교사는 효과적인 사후 보상책으로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250명(61.4%),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211명(51.8%), 평가인증 보육시설 시설운영비 지원 137명(33.7%)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법인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비 증액 116명(5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설운영비 지원 74명(32.9%), 보육교사 평가인증 참여경력 인정 56명(24.9%)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129명

<표 15> 보육시설 직급 및 유형별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국공립/법인	민 간	가 정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13(8.1)	24(5.9)	13(5.8)	17(8.0)	8(6.3)
종사자 인건비 지원	68(42.5)	250(61.4)	116(51.6)	126(59.4)	71(55.9)
시설운영비 지원	106(66.3)	137(33.7)	74(32.9)	109(51.4)	56(44.1)
처우개선비 증액	57(35.6)	211(51.8)	116(51.6)	92(43.4)	59(46.5)
보육교사 평가인증 참여경력 인정	25(15.6)	94(23.1)	56(24.9)	40(18.9)	24(18.9)
해외연수 기회 부여	32(20.0)	60(14.7)	53(23.6)	24(11.3)	18(14.2)
기 타	0(0.0)	1(0.2)	1(0.4)	0(0.0)	0(0.0)

*중복응답

(59.4%), 시설 운영비 지원 109명(51.4%), 처우개선비 증액 92명(43.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보육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71명(55.9%), 처우개선비 증액 59명(46.5%), 시설운영비 지원 56명(44.1%)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평가지표에 의해 개별 보육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인증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부모 등 관련자 모두가 중요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이다. 그런데 평가인증은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간 평가인증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클수록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간 인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평가인증 준비과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종사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 결국 평가인증 참여로 인해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문제가 커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시설유형별로도 평가인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들이 근무하는 시설유형별로도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평가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증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70% 이상이 평가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시설장과 교사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

장과 보육교사 모두 평가인증이 필요한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경혜와 김진숙(2006)의 연구에서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들은 평가인증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시설유형별로는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국공립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민간, 가정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나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고무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평가인증 운영 세부 영역에 있어서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보다 현장방문관찰 절차와 평가지표 교육을 보다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방문 조력을 필요로 하였는데 방문조력 활동의 보완점으로 시설유형별 현장경험이 있는 조력자를 원하고 2명 이상의 조력자간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들이 현장방문관찰을 통해 보육실에서 제공되어야 할 흥미영역 구성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자신의 학급에 이를 적용해보는 과정이 있기에 보육시설장보다 현장방문관찰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장보다 보육교사들이 평가지표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표교육의 적절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필요로 하는 평가인증 조력 지원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육시설장을 위한 평가인증 조력 교육에는 전반적인 지표 교육 뿐 아니라 시설장의 역할 및 시설 운영관리 측면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조력교육에는 전반적인 지표교육과 더불어 보육일지 작성법, 흥미영역 구성,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별로 평가인증 운영 세부 영역에 민간 보육시설이 국공립/법인과 가정보육시설보다 자체점검기간, 평가인증지표, 현장방문관찰 절차, 평가지표 교육, 평가인증 유효기간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보육시설이 다른 시설유형보다 평가인증 운영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평가인증에 대한 부

정적인 정서가 많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평가인증 준비과정
 대한 두려움이 다른 시설유형보다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문조력 활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다
 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국공립/법인과 가정보육시
 설이 민간보다 방문조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력활동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과
 유형에 상관없이 시설유형별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 파견 및
 2명 이상의 조력인원이 시설에 대해 일관된 의견 제공하는 것
 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선정된 조력자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여 일관성있는 조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인증 시설은 조력전문가에게 의지할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이들 조력자의 평가인증 관련 전문성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인증 조력자를 위한 매뉴얼이 개발되
 어 조력자간 일관성있는 조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조력자
 교육 또한 강화하고 조력자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평가인증 실시와 관련한 부모의 반응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국공
 립/법인과 가정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부모의 반응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평가인증 실시와 관련한 부모의 반
 응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보육시설장은 영유아 보육에 소홀
 하게 된 점과 특별활동이 줄어든 점을 든 반면 보육교사의 다수
 는 영유아 보육에 소홀하게 된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보육시설
 장과 보육교사가 평가인증제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를 대상으
 로 평가인증 참여 시설에 대한 인식과 평가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를 알아보는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모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해 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공립/법인과 가정보육시설보
 다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부모의 반응을 상대
 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이 가정보
 다는 규모가 크고 국공립에 비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
 에 평가인증 준비 및 참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많이
 지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평가
 인증과 관련한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탁옥경
 과 배지희(2007)도 보육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인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학교-기관간
 의 산학협력 등의 체계를 통해 보육시설에 사무 및 청소, 교재
 교구관리 등의 업무보조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주장하
 였는데 특히 민간보육시설에 이러한 인력지원이 제공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평가인증 참여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하여 보육시

설장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퇴근과 평가인증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주요 어려움을 제시한 반면, 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낮
 은 퇴근 외에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소홀한 점을
 어려운 점으로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 종사자 모두 평
 가인증 참여 과정에 많은 시간과 재원 및 노력을 소요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김경혜와 김진숙(2006)은 보육교사들이 엄청난
 서류 준비와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시간외 근무 등으로 많은 부
 담을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서현(2007)도 평가인증을 준비하
 는 보육교사들이 '방치되는 아이들',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
 수', '시설장 및 동료교사간의 갈등' 등의 어려움을 갖는다고 보
 고하였다. 종일제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에 참여
 하는 과정이 보육시설 자체 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평
 가인증 참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비용이 보육시설장에
 게 매우 부담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인증 참여과정
 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보육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과중한 업무와
 낮은 퇴근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평가인증 준비로 영
 유아 보육에 소홀과 평가인증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
 타났다. 이는 평가인증을 참여하면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 평가
 인증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과부하가 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해주거
 나, 대체인력을 충원하여 교사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육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제공하면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보육시설은 많지 않다. 국가
 적 사업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
 는 비용은 개별 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평가인증 효과 인식에 있어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는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교사의 전문적 능력 함
 양, 학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효과가 있었던 분야에 대해 보육시설장보다 보육교
 사가 영유아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협조
 증가 등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인증을 통
 하여 학부모와의 교류나 협력이 더 잘 이루어졌으며(김경혜 ·
 김진숙, 2006), 평가인증 참여과정에서 보육시설의 환경 변화
 를 경험하고 보육전문가로서의 자신감, 시설장 및 동료교사들
 간 친밀감이 형성되고(최미숙 등, 2007), 긍정적인 교수효능감
 을 갖게 되었음(우연희, 2007)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
 하는 것이다. 평가인증의 효과는 원아모집이라는 현실적, 물질적
 혜택보다는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의 보육전문가로서의 자신
 감이나 종사자간 결속력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와의
 교류 및 협조가 보다 많이 증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축
 면의 잇점이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시설 장학지도가
 없는 현 체계에서 평가인증이 장학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인증 조력제도가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호적이고 이해심 많은 전문적인 조력자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시설유형에 적합한 조력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양질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보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강화' 측면에서는 가정, 민간,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효과를 보고하였지만 나머지 보육시설 질적 수준 개선, 보육활동의 다양성,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강화 등의 3가지 측면 모두에서 가정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의 효과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이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보육시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는데 특히 보육시설장은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그리고 보육교사는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함양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고양되었다는데 평가인증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업무외의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한다는 피해의식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체력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부정적 의식 또한 갖게 된다. 평가인증만 통과하면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가는 평가인증 자체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보육현장에 평가인증이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 시설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재완과 류수현(2006), 김경혜와 김진숙(2006), 전경숙 등(2009)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공립/법인과 가정은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민간은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으며 평가인증 문항의 축소와 기준 완화 또한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활성화 방안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보육료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이 가정보육시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가인증 준비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 보육시설 종사자 직급과 유형에 상관없이 보육시설 상황에 맞는 맞

춤형 조력활동 활성화와 평가인증 준비시 지원인력파견제도 도입 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보육시설장은 보육환경개선비를 가장 많이 보고한 반면 보육교사는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한편 평가인증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국공립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민간과 가정은 보육환경개선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시설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원을 보육교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수향과 최연희(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후 보상책에 대해 보육시설장은 평가인증 보육시설 시설운영비 지원과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가장 많이 보고한 반면 보육교사는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한편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고 이외에 처우개선비 증액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후 보상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 평가인증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환경 개보수비용, 교재교구와 비품 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각 시설마다 상당한 부담이 되고 보육교사에게는 인증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교사의 이직이 증가하고(김경혜·김진숙, 2006).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사업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재정적 지원과 연계되지 않는 평가인증제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박복매·문혁준, 2008).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금미숙, 2007; 김동례, 2007; 라소영, 2006; 오인수, 2007; 이경채, 2003; 이나영, 2006)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많은 시설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또 결과에 따른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과중한 업무 등 어려움이 있지만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평가인증 참여 시설에 대해 교사를 투입하거나 보조교사제를 도입하는 인력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재완과 유수현(2006)은 영유아보육법에 '평가인증결과에 따라 보육 사업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평가인증이 보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해 공보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보육사업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호주에서도 평가인증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상승되는 효과를 얻고 있는데(Howe, 2000), 미국 NAEYC

인증기관의 직원들의 경우 의사결정 영향력이 더 높고 더 호의적이며 이직율도 낮았다(Bloom, 1996). 평가인증 참여 과정 및 인증 통과 후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을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국의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을 다른 지역의 보육시설로 확장하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선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 방법을 질문지를 이용하여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비구조화된 질문 방법이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실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점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온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특히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평가인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주요 변수라고 볼 때 이들의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평가인증관련 정책 입안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강달금 · 이영석(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에 관한 문제점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185-216.
- 금미숙(2007).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혜 · 김진숙(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반응.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85-112.
- 김동례(2007). 보육시설 종사자가 인식한 평가인증제의 운영과정과 사후유지 관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례 · 이현경(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교사와 비참여교사의 직무만족도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25-48.
- 김수향 · 최연희(2009). 평가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아동교육*, 18(2), 65-78.
- 김영희 · 박지현 · 이은주(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3), 387-397.
- 김향은(2008).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효과. *한국아동학회*, 29(1), 169-188.
- 남선영(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 연구: 2005년 인증 통과 보육시설 대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라소영(2006).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미정(2006). 성공적인 보육시설 평가인증 준비과정을 위한 질적 접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3), 111-135.
- 박복매 · 문혁준(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시설장의 인식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8), 1-11.
- 박지현 · 김영희 · 이은주(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교사의 평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4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 어린이집 10개 중 6개 평가인증 통과(제 1차 평가인증 종합 결과 발표). 2010. 3. 25.
-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침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 서문희 · 이상헌 · 임유경(2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현(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에 나타난 보육교사 경험의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50, 1-29.
- 오민수(2007). 보육시설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연희(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가 보육교사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정아 · 이진희(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전후의 교사 효능감과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아동교육*, 17(4), 213-224.
- 유희정(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운영 평가와 과제. *육아지원기관 평가의 과제와 전망. 육아정책세미나자료집*, 43-75.
- 이경채(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나영(2006).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 이진희(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의 영아 대상 적절성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5(1), 111-135.
- 이재완 · 류수현(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 장의 인식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361-381.
- 전경숙·임양미·김혜금·이혜선(2009). 경기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덕희(2007). 정부비지원시설장이 바라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71-393.
- 조경서·유준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과정에 참여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1), 67-95.
- 조혜경·오애순(2007). 지역사회 대학연수가 교사의 평가인증 지표 이해에 미치는 보육경력별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51, 1-24.
- 채혜선·현정희(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전문성발달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2, 63-84.
- 최미숙·이미혜·이민경(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가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역할수행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9(2), 129-150.
- 탁옥경·배지희(2007a).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7(4), 327-353.
- 탁옥경·배지희(2007b).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과정에 나타나는 어린이집의 변화 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29(4), 257-280.
- 하영례·고경필(2007). 평가인증제를 준비하는 교사의 "어려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51, 127-153.
- 하은경·김주후·김경란(2008).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참여 및 만족도 분석: 평가인증 심의 통과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153-176.
- Bloom, P. J.(1996). The quality of work life in NAEYC accredited and nonaccredited early childhood program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4), 301-318.
- Howe, M. B.(2000). Improving child care and promoting accreditation: The military model. *Young Children*, 55(5), 61-63.
- Lee, J. & Walsh, D. J.(2006). Early childhood practitioners and accreditation: Perceptives and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2(1), 23-51.
- Wangnam, J.(1992). National Accreditation of Early Childhood Services: Confronting the Issues. *Independent Education*, 22(1), 26-28.

- 접수일 : 2010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10년 12월 03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2월 24일